

증권업

강승건 cygun101@daishin.com 한승이 songeehan@daishin.com

투자이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증권에서 금융투자로의 제도적 발판 마련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주요 내용은 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2)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3)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 등임
-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은 증권업의 금융투자업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서 자금 공급자로서 역할 강화를 감독당국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자금 공급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로 연결될 것임
-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리하면 1) 사모시장 활성화 및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자금 조달 기능을 확대하였고 2) 신용공여 규제 완화, 담보 증권 활용도 제고,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그리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 허용을 통해 자금 공급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3)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허용을 통해 신 수익원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것임
-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에 업계가 당면한 경쟁력 저하 요인에 대한 고찰이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몇몇 안건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증권업의 금융투자업으로의 변화 가속화, 대형사와 중형사의 역할 분담

-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기존의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던 대형사와 중형사의 역할 분담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으며 자금 공급자로서의 역할 강화가 제시되어 있음
-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신수익원에 대한 제한적 기회 제공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중형사의 경우 특정 부분(특히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을 특화시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최근 미래에셋증권의 유상증자 결정으로 2016년에는 종합금융투자업자가 6개사(기존 NH, 대우, 삼성, 한국, 현대)로 증가할 예정이며 자본 확충이 비교적 간단한 금융투자 계열 증권사와 M&A 및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메리츠증권증권까지 감안하면 향후 9개 이상의 종합금융투자회사와 중형사로 업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번 방안에 포함된 종합금융투자업자에만 허용되는 것은 1) 기업신용공여한도를 분리하여 자기 자본의 100%까지 확대, 지급보증한도를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하여 대폭 완화, 2) 별도 NCR 체계를 마련하여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의 간접성 규제를 은행수준(NCR 위험 기준치 AAA등급 기준 31.6%→1.6%)으로 완화, 1년 초과 신용공여 역시 점진적으로 부담 경감, 3)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허용, 4) 상장주식에 대해 제한적인 비경쟁매매 시장개설 허용 등임

중소기업 IB업무 특화 중소형 증권사 육성

- 중소 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 정책금융기관과 연계 등을 통해 중소 기업 IB 업무를 위한 '정보'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1)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시 정책지원 강화, 2) 신용보증기금의 P-CBO 발행 인수자 선정시 우대, 3)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4) PEF/벤처펀드 자본 거래시장 개설시 제한적으로 중개 증권사로 참여 허용 등임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7	-11.6	-26.1	13.4
상대수익률	2.6	-9.4	-22.3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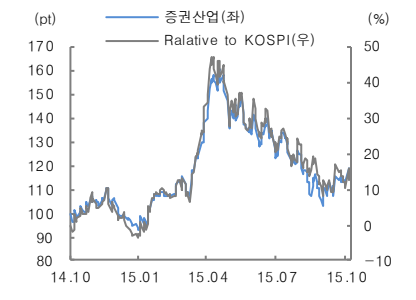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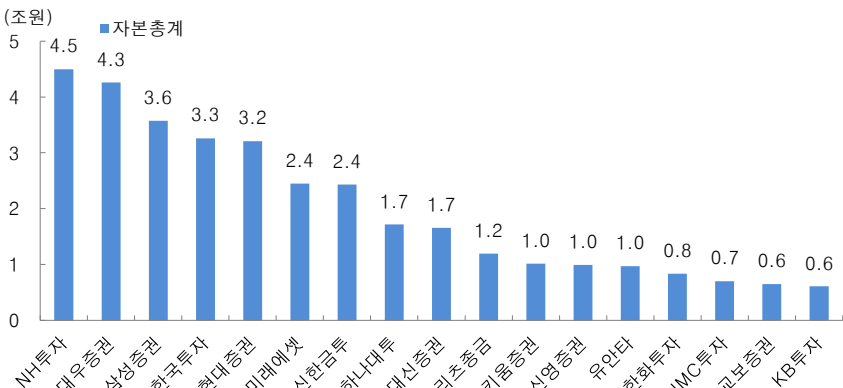


표 1.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내용	세부내용	추진일정
자본시장의 기업금융기능 강 화	Ⅰ. 대형 IB 자금공 급 기능 강화	1. 신용공여 한도 증액: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기업 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	궤발의
		2. 지급보증 업무규제 합리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보증한도 폐지	'16.1Q
		3. 전담신용공여 범위 확대: 헤지펀드에 대해 증권 이외의 담보를 이용한 신용공여가 가능	궤발의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별도 NCR 체계 마련: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의 경우 우선적으로 건전성 규제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완화 등(예) NCR 위험가중치: AAA 등급 기준 31.6% → 1.6%	'16.1Q
		5.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강화	'16.2Q
	Ⅱ. 중기 특화 증권 사 지정제도 운영	1. 중기특화증권사 지정제 도입	'16.1Q
		2.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16.1Q
	Ⅲ. 사모시장 정비	1. 적격기관투자자(QIB) 사모시장 규제 완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 등	'16.1Q
		2. QIB 시장 발행증권 혜택 확대: QIB 시장에서 발행·유통되는 사모채권이 발행정보 게시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 일반 사모채권에 비해 활용성을 제고	'16.1Q
		3. 사모채권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발행인의 경우 사모채권을 49매 이하로 발행하더라도 1년간 전매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16.2Q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 영역 개척 지원	Ⅰ. 대형 IB 시장개 설 업무 허용	1.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허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매수·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허용	'16.2Q
		2. 상장주식 비경쟁매매 시장개설 허용	'16.1Q
	Ⅱ. 전문투자형사 모펀드 운용 허용	자본시장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을 전제로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허용	'15.4Q
	Ⅲ. 담보목적 보유 증권 활용도 제고	1. 담보목적의 대차거래 시장 개설: 증권 대여시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등	'16.2Q
		2. 증권사가 보유한 담보증권의 재활용 여건 개선: 대차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제도 개편	'16.1Q
창의적 서비 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	Ⅰ. 전문투자자 범 위 확대	1.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잔고 5억원 이상&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잔고 5억원 이상&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원 이상&총자산 120억원 이상' 법인으로 조정	'16.1Q
		2. 모든 전문투자자는 공모 판단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에서 제외	'16.1Q
	Ⅱ. 정보교류차단 장치 단계적 정비	1. 예외 사항 확대 및 조문정비: 기업금융부서에도 전자단기서체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허용 등	'16.1Q
		2. 정보교류차단방식의 근본적 전환: 현행 사전 금지 방식에서 사후적인 처벌로 전환 검토	'16.4Q
	Ⅲ. 인수업무관련 규제 합리화	1. 인수업무 자격제한 완화: 증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중 주관계약 체결시점부터 공모 후 6개월까지 처분이 제한된 지분은 이해관계 판단시 제외	'15.4Q
		2. 인수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허용	'15.4Q
	Ⅳ. 역외영업 가이 드라인 마련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투자자 대상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15.4Q
	Ⅴ.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	1. PF 대출 만기제한 폐지: 실물자금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	'16.1Q
		2. 일중 반대매매 시기 자율화: 적절한 매도수량 산정을 통한 고객 이익 보호 도모	'16.1Q
		3. 고객이 추가담보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인정범위 자율화	'16.1Q
		4.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매도증권 담보대출 제외	'16.1Q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증권사 2015년 6월말 별도 기준 자본총계



자료: 금감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강승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관련사항]

산업 투자의견	기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6개월간 업종자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Buy(매수):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상승 예상
Neutral(중립): :향후 6개월간 업종자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10%p 추가 변동 예상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6개월간 업종자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하락 예상

[투자의견 비율공시]

구분	Buy(매수)	Marketperform(중립)	Underperform(매도)
비율	85.5%	14.0%	0.6%

(기준일자: 20151012)